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자녀 진로에 대한 인식 및 진로지도 비교*

배기연(裴基延)
이동혁(李東赫)**
황매향(黃梅香)
이송하(李松河)
차지숙(車芝淑)
정혜운(鄭惠允)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 5, 6학년 자녀를 둔 24명의 한국과 일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어머니가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진로기대를 가지고 진로지도를 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5개의 영역과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영역들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어머니에게 직업이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자신의 적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어머니 모두 자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둘째,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는 자녀가 이러한 직업을 선택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어머니는 '성취'를 생각한다면, 일본 어머니는 '관계'를 생각한다. 한국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성취를 기대할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는 반면, 일본 어머니는 직업을 인간관계기술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셋째, 한국의 어머니는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선택하고 있다면, 일본 어머니는 '간접적인 관여'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어머니는 자녀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한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을 정서적 지원 또는 진로에 대한 대화 등으로 제한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가 교육과 상담에 대해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직업인식, 자녀진로기대, 진로지도, 한국과 일본 어머니,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

* 이 논문은 배기연(2014)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동혁/건국대학교 교직과 부교수/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사범대학(143-701)/ Tel: (02) 450-3298/ Email: dhlee@konkuk.ac.kr

I. 서론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Turner & Lapan, 2002). 영국 국립 진로교육 및 상담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1996)의 보고서는 부모의 지지와 영향이 청소년 진로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며, Young과 Friesen(1992)도 다양한 영역의 진로발달에서 부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日本經濟団体連合會(2003)에서도 자녀에게 있어 최초의 사회적 장인 부모는 아이들에게 꿈, 희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며, 진로관련 행동과 목표 지향적 행동의 모델이 되어주고, 진로관련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등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진로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된다. 물론,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실현하는 것이지만(Super et al. 1963),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진로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아개념 실현만이 진로 선택의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Leong & Hartung, 1997; Leong & Serafica, 1995).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의 진로선택은 단순히 자기를 실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가족의 영향을 진로선택에 잘 반영하는 것 또한 포함하게 된다(Leong & Hartung, 1997). 그러므로 아동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Hotchkiss & Borow, 1984; Tracey, Leong & Glidden, 1986). 특히,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진로발달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가 아동의 진로발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자녀 진로지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가 자녀의 진로의사 결정이나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희, 문은미(2011)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진로결정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수미, 강유림(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많을수록 자녀의 진로포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실은 자녀에 비하여 부모들이 스스로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지지 수준에 비하여 부모가 스스로 인식하는 지지 수준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연구가 모두 이루어져야 진로지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보운, 공운정(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진로지도가 아동의 진로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황정은(2009)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한 진로집단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하여 자녀의 진

로성숙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직업가치관은 자녀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직업 가치관 형성, 장래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이향순, 2008). 또한 부모는 그들의 직업가치관을 자녀에게 투사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가치관에 따라 자녀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양육한다고 한다(박순이, 2005).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적 요인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는 방해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Murray, 1962). 예를 들면, 부모의 가치관으로 인해 자녀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되기도 하고(조아미, 2000), 또는 부모의 직업가치관으로 인해 자녀들은 더 높은 수준의 직업이해, 적절한 직업선택 등을 하게 된다(빈승열, 1996).

그런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녀의 지각을 통하여 수집된 연구결과였다(임상옥, 2003). 즉, 부모가 가진 생각을 직접 탐구하기 보다는 자녀의 관점을 통하여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기대를 탐색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과 기대를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선혜연, 2009; 하정, 2007).

부모의 직업가치관은 하나로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흐름, 부모의 직업, 부모의 배경 등에 따라 달라진다(양한주, 1998; 加藤守弘, 内藤勇次, 1991; Super, 1957). 그리고 부모가 어떤 문화적 배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부모의 가치관은 다르게 나타나며, 자녀를 지도하는 방식에서도 달라지게 된다(박찬옥, 이은경, 2012). 따라서 자녀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직업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개인적 배경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가치관이 생성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에 따라 부모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존의 문화비교 연구에서는 동양과 서양 어머니의 진로지도 방식을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일 뿐, 동양권에 속한 나라를 비교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임병호, 정동양, 2007). 비록 같은 동양권에 속하여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국가가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동양권 문화에 속한 부모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국가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권에 속한 국가의 부모들이 진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를 비교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 간 비교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다 넓은 시야를 갖도록 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 인간의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이노미, 2005; 최순자,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각각 독특한 사회구조와 문화를 발전시켜온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직업가치관에 대해서 비교 탐색을 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를 탐색하여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유교문화권이고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동양문화권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부모의 영향력이 큰 편이며, 서구에 비해 자녀의 상급학교의 결정 시, 부모의 의견이 비교적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東洋, 2004). 하지만 직업가치관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차이점도 발견된다. 한중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姜永培(2004)의 연구를 보면, 한국 대학생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과 개인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직업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나 고용시장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같은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교문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문화를 형성하였다. 한국은 학문중시의 유교적 정신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반면, 일본은 무사계급이 지배하는 막번체제에서 상공업발전을 위한 실리 존중이 강했던 시대가 장기간 계속되어 학문과 교육에 대한 생각이 한국과는 달라지게 되었다(가와이노리코, 2011; 사사미쓰아키, 1990). 또한 일본은 교육으로 인한 사회계층 이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학력에 대한 가치관이 분산된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교육을 신분 상승을 위한 중요한 통로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가와이노리코, 2011). 물론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학력만으로 사회이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학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전 계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김태호, 2012; 최상진, 2000). 그리고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한국의 고용시장이 일본에 비하여 안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고용시장의 안정도를 볼 수 있는 척도인 자영업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5.8%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31.3%, 일본은 13%였다. 한국은 OECD국가들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두 배 많다. 자영업자는 경기에 민감하며,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경기에 영향을 받는 계층들이 많다는 뜻이다(김광석, 2012). 이러한 고용시장의 불안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김명희,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 기술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어머니들이 직업이나 자녀의 진로발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태도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들이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진로발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진로지도도를 하고 있는지 비교 탐색해 보았다.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식을 탐색해 봄으로써 진로발달 초기에 있는 아동들의 어머니는 문화에 따라 직업과 진로발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에 따른 상대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진로지도에 있어서

한국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할 것이며, 아동의 진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탐색하도록 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Hill, Thomson & Nutt-Williams, 1997; Hill et al. 2005). Hill과 동료들은 기존의 질적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5명간 합의를 통한 질적연구법을 개발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다수의 연구자들과 함께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 사례들 사이의 결과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하며 자료분석에서 참여자 진술의 내재적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료에서 보여주는 내용 그 자체를 토대로 사실적으로 접근하여 명시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방법이다.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에 따른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대한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질적 연구에 참여의사가 있는 한국과 일본의 5, 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가능한 교육적 관심도가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소득수준을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8명의 어머니가 자원을 하였는데 그 중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어머니 4명을 제외하고 총 24명(한국 12명, 일본 12명)의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제외된 4명의 어머니는 자녀가 초등학교 5, 6학년이 아니거나 지역 안배 차원에서 지역이 중복된 어머니였다. 12명의 한국 어머니 중 7명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2명의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연령은 37세에서 46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12명의 일본 어머니의 경우 8명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2명을 제외한 모든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연령은 38세에서 47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한국은 서울시 내의 학업수준을 고려해 한 구에 몰리지 않도록 다양한 구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였고, 일본은 서울과 교육관심도가 비슷한 교토, 오사카, 시가현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를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구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사립초등학교 1명, 일본은 사립초등학교 2명이며, 나머지 아동들의 학교는 공립초등학교이다. 자녀의 순위와 성별이 치우치지 않게 고려하였는데 한국은 첫째(외동포함)가 3명 및 일본은 4명, 한국은 여아 3명, 남아 9명, 일본은 여아 5명, 남아 7명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5, 6학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선정한 이유는 진로발달 단계 상 성장기로 접어들 뿐 아니라(Tuckman, 1974), 자신의 흥미를 탐색하고 직업에 대해 배우기 시작해야 하는 12세 전후의 아동들의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소연희, 2011; 이철구, 2003). 특히 아동의 진로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탐색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이며(최보윤, 공운정, 2009; Mitchell & Krumboltz, 1996; Schultheiss & Blustein, 1994), 부모 중에서도 아동의 진로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조찬성, 2000; Otto, 20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K: 한국, J: 일본)

사례	어머니 학력	어머니 현재 직업	어머니 연령	자녀 성별	자녀 학년	자녀 출생순위
K1	고졸	프로그래머	46	여	초6	둘째
K2	대학원졸	사모, 피아노강사(아르바이트)	39	남	초6	첫째
K3	고졸	주부	41	남	초5	둘째
K4	대졸	학원경영, 강사	38	여	초5	첫째
K5	고졸	보험관리사	44	남	초5	둘째
K6	고졸	온라인쇼핑몰 관리(시간제)	42	남	초5	첫째
K7	전문대졸	봉제	39	남	초6	둘째
K8	고졸	아르바이트	41	여	초5	둘째
K9	대졸	공무원	42	남	초5	둘째
K10	대졸	주부	42	남	초6	둘째
K11	대학원졸	교사	37	남	초5	둘째
K12	대졸	주부	42	남	초5	셋째
J1	대학원졸	상담사	47	여	초6	셋째
J2	대졸	아르바이트	44	여	초6	둘째
J3	고졸	영업사원	40	여	초5	외동
J4	대학원졸	산림연구원	42	남	초6	첫째
J5	고졸	아르바이트	46	여	초5	외동
J6	대졸	회사원	40	남	초6	둘째
J7	대졸	아르바이트	45	남	초5	셋째
J8	대졸	학원강사	42	남	초5	첫째
J9	전문대졸	아르바이트	38	남	초5	둘째
J10	고졸	주부	42	남	초5	셋째
J11	대졸	아르바이트	45	여	초5	셋째
J12	고졸	주부	42	남	초6	셋째

2. 연구도구

연구대상과의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표 2와 같은 반구조화 면접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 및 질적 연구관련 문헌(신기숙, 2010; Hill et al., 1997; Hill et al., 2005)을 개관하였으며, 직업에 대한 인식, 자녀진로기대, 진로지도의 특성과 관련된 문헌으로는 198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진로의식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김신경(1994)의 논문과 남경민(2009), 이은영(2011), 최봉순(2011)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헌고찰과 진로지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반구조화 면접질문지를 구성하였고, 연구자의 편견과 확인을 묻는 문항은 배제하고 연구참여자의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최종 면접질문지를 작성하기 전, 네 차례의 예비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예비 면접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감수자에게 감수를 받은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 면접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일본어 면접문항은 한국의 면접문항과 동일한 것으로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번역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일본대학원생과 유학생에게 첨삭을 받았다.

<표 2> 반구조화된 면접지

연구문제	하위 질문
1.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삶에 있어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	1-1. 어머니에게 있어 직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렇게 생각하신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직업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고 중요한가요? 1-2. 과거, 현재 직업에 영향을 끼친 사건 및 사람을 말씀해주세요. 1-3. 성별에 따라 직업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업을 선택할 때 성별을 어느 정도로 고려하십니까? 1-4. 직업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선호하는 직업과 선호하지 않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 직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한국과 일본 어머니는 자녀에게 어떤 진로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2-1. 자녀의 특성(성격, 흥미, 관심)이 어떤 직업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까? 2-2.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3. 자녀가 진로선택 시,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4.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 2-5. 학업적인 면에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수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2-6. 자녀의 성취도는 어머니에게 있어 어느 정도 중요한가요?
3. 한국과 일본 어머니는 어떤 진로지도를 하고 있는가?	3-1. 진로지도 시,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2. 자녀의 특성을 알기 위해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3-3. 학교공부나 숙제는 가정에서 어떻게 돕고 있나요? 3-4. 현재 자녀의 진로에 대한 지원에 할애하는 시간과 어머니의 개인적 생활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3-5. 자녀의 진로를 위해 최종 교육단계는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3-6. 자녀와 나누는 진로대화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3-7. 진로지도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개발한 질문지를 토대로 24명의 어머니들과 심층면접을 실시했는데, 면접시간은 사례별로 1회씩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의 내용은 사전 허락 하에 녹음을 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연구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과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밝혔다. 분석과정에서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 면접 후 참여자의 분위기와 비언어적 특징, 면접을 통해 느낀점 등을 메모하였다. 한국과 일본어머니의 면접은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문항 점검은 학교상담 전공을 하는 일본 석사과정생 1명, 학교상담 및 임상심리를 전공하는 전공교수 1명이었고, 축어록 점검은 일본유학생 1명,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1명에게 검수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합의적 질적연구 방법에서 제안한 절차를 따로 분석하였다. 먼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합의팀을 구성하였다. 합의팀은 주연구자를 포함한 평정자 4명과 감수자 2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평정자들은 모두 상담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이었다. 또한 감수자는 모두 20년의 임상 및 훈련을 담당 한 진로상담전문가이며 현재 대학교에서 초등교육 전공 교수 1명과 상담심리 전공 교수 1명이었다. 다음으로 축어록에 있는 원자료를 분석해,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요약물 통해 중심개념을 구성하였다.

24개의 축어록은 주연구자가 직접 정리하였고, 축어록을 합의팀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합의팀은 매회 4사례를 개별적으로 축어록을 검토하고 비슷한 영역을 묶어 분류해온 뒤, 다시 모여 요약한 내용과 분류한 영역에 대해 토론을 거쳐 가장 적합한 영역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각 사례별 검토를 한 후, 중심개념을 구성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분류되어진 영역들 간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영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영역은 새롭게 재정의 되거나 삭제되기도 하고 다른 영역과 결합되어 새로운 영역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합의된 이후, 각 사례들의 영역과 중심개념을 구성한 후 감수자의 점검을 받았다. 감수자는 모든 원자료를 읽고 원자료가 정확한 영역으로 분류되었는지, 원자료가 모두 하나 이상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는지, 중심개념이 원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감수자가 검토한 자료를 합의팀이 모여 다시 수정하고 합의하는 논의과정을 반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들 간에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영역에서 유사한 중심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범주(Category)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뒤, 각 사례에서 등장하는 빈도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Hill et al.(2005)의 제안에 따라 각 범주를 모든(12사례), 대부분(6-11사례), 드문(1-5사례)으로 분류하였다.

III. 연구 결과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직업가치관, 자녀에 대한 진로기대, 자녀진로에 대한 어머니의 밀착도, 진로지도, 진로지도 시 어려움 등 5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14개의 범주가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각 영역과 범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어머니의 자녀 진로지도 경험의 5개 영역과 14개 범주

영역		범주	
1	어머니의 직업가치관	직업의 의미	
		직업과 성별의 관련성	
		직업과 성별이 차이가 나는 이유	
		선호직업의 기준	
		이전 직업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2	자녀에 대한 진로기대	진학기대	기대학력, 성취기대, 성취기대와 다를 경우
		직업기대	자녀의 직업선택기준, 자녀미래상
3	자녀진로에 대한 어머니의 밀착도	진로지도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에게 있어 자녀 진학준비의 중요도	
4	진로지도	진로관련 대화	
		자녀의 적성 찾기	진로지도 관여기간
5	진로지도 시 어려운 점	진로지도 부담요인	
		진로지도 부담요인 해결법	

1. 어머니의 직업가치관

1) 직업의 의미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는 직업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먼저, 대부분의 한국과 일본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직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얻는 중요한 도구로서 직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업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어머니가 모두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한국 어머니는 직업을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의 일본 어머니들은 직업을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경제적 수단이자 성장의 장으로서 이해되고 있지만 일본 어머니들에게는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관계형성의 장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직업을 성장의 도구라고 언급한 한국 어머니와 직업을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는 곳이라고 언급한 일본 어머니의 사례이다.

“직업이란 단어를 들으면 자기계발을 하는 통로라는 생각이 들어요.”(한국 어머니 사례 7)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배우는 곳 같아요. 일하는데 관계가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거래처 사람들의 매너, 어떤 말로 손님에게 응대해야 할지.”(일본 어머니 사례 3)

한편, 한국 어머니들에게서만 독특하게 언급된 직업의 의미가 있었는데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곳’과 ‘사회적 지위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주는 곳’ 두 가지이다. 이러한 독특한 반응은 아마도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당 근무시간이 매우 많은 한국의 사정과 직업을 신분상승의 기회로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는 직업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한국의 어머니는 직업을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성취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본 어머니는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는 배움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직업의 의미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직업 가치관	직업의 의미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수단	대부분(10)	대부분(10)
		성장의 도구 (자기계발, 역량 펼치기, 성장, 성취)	대부분(8)	드문(5)
		인간관계기술을 배우는 곳	드문(1)	대부분(6)
		보람을 느끼는 곳	드문(5)	드문(1)
		자신이해의 실현 (자기이해 및 자신의 특성이해)	드문(2)	드문(4)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곳	드문(3)	
		사회적 지위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주는 곳	드문(3)	
		자녀 양육의 보조 수단	드문(2)	드문(2)
		꼭 해야 하는 것	드문(1)	드문(1)
		인맥을 얻게 되는 곳	드문(1)	드문(1)

2) 직업과 성별의 관련성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는 대부분 성별에 따라 직업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인식하였다(표 5 참조).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성별에 따라 적합한 직업이 따로 있거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직업에서 더 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일본 어머니들 중에는 성별에 따라 직업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인식하는 어머니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일본 어머니 사례 2의 경우 “음. 있다고 생각해요.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직업은 여성에게 더 적합, 어떤 직업은 남자에게 더 적합하다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 경찰,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은 남자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응답을 하였다.

성별에 따라 직업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어머니 모두 ‘실제 현장에서 구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여성은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등 현실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성별에 따라서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5> 직업과 성별의 관련성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직업 가치관	직업과 성별의 관련성	성별에 따라 직업의 차이가 없다	대부분(8)	대부분(7)
		성별에 따라 직업의 차이가 있다	드문(1)	드문(5)
		성별에 따라 직업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 하지만 행동과 생각이 다르다	드문(2)	

3) 선호직업의 기준

한국과 일본 어머니는 자녀가 선호하는 직업은 그들의 ‘적성과 일치’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다만 몇몇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장래성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또는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일본 어머니들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정직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과 일본 어머니 모두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선호직업의 기준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직업 가치관	선호직업의 기준	적성에 일치해야 함	대부분(10)	대부분(11)
		장래성이 있어야 함 (전문성, 성장가능성)	드문(2)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함 (공헌, 리더)	드문(1)	드문(1)
		정직한 일이어야 함		드문(1)
		안정적이어야 함	드문(1)	
		특별한 기준 없음	드문(2)	

4) 이전 직업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어머니 자신의 직업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한국과 일본 어머니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표 7 참조). 한국 어머니의 경우, '외적인 경제 사정'과 '직업 조건'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일본 어머니의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권유'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개인적 특성' 또한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어머니의 경우에도 적지만 '타인에 의한 권유'와 '개인적 특성'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었음을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의 어머니는 직업선택 시 경제나 직업과 같은 외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았다면, 일본의 어머니는 타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전 시골 출신인데 장래를 걱정하셨겠죠. 집안 환경이랑. 집에서 도와주지 못 하니깐 교대 가고 하셨어요.”(한국 어머니 사례 11,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중요한 기준)

“그걸 정한 이유는 제가 취직할 때 경제호황 시기라서 직업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구인정보가 넘칠 정도로 많아서 다 읽어보지 못 할 정도로...집에 가서 이것저것 회사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 회사를 결정하게 되었어요.”(일본 어머니 사례 10, 부모님의 조언이 중요한 요인)

<표 7> 이전 직업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직업 가치관	이전 직업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외적인 경제적 사정(경제적 어려움, 집안사정)	드문(5)	
		타인에 의한 권유(부모, 선생님, 주변)	드문(4)	대부분(7)
		직업조건(급여, 시간, 안정, 복지, 사회적 인정)	드문(5)	드문(2)
		개인적 특성(흥미, 적성, 성격)	드문(4)	드문(5)
		인맥	드문(2)	
		비전, 미래전망	드문(2)	
		사회적 상황(사회변화, 지진, 버블붕괴)	드문(2)	드문(3)

2. 자녀에 대한 진로기대

1) 기대학력

한국의 모든 어머니와 일본의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이 대학이상의 학력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었다(표 8 참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적어도 대학은 졸업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어머니의 경우에는 한국 어머니와는 달리 소수이지만 고등학교 학력을 최소 기대 학력으로 언급한 어머니도 있었으며, 또는 다른 계획이 있다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한 어머니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어머니가 한국의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의 학력에 대해서 다소 탄력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교까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대학까지는 기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많은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한국 어머니 사례 12)

“대학교까지 하면 좋겠지만. 혹시 아이가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면 들어보고 그것에 맞출 것 같아요.”(일본 어머니 사례 5)

<표 8> 기대학력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자녀에 대한 진로 기대	진학기대 (기대학력)	대학교이상	모든(12)	대부분(8)
		아이의 상황에 맞게		드문(3)
		다른 계획이 있으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됨		드문(2)
		고등학교		드문(1)

2) 성취기대

성취에 대한 기대에서는 한국의 어머니와 일본의 어머니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표 9 참조). 대부분 한국 어머니의 경우 자녀들이 성취에 있어서 ‘상위권’에 들기를 바라고 있지만, 일본 어머니의 경우에는 ‘보통,’ 또는 ‘최선을 다하기’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 어머니는 높은 기대수준을 보이는 응답을 많이 하였지만, 일본 어머니의 경우는 잘하기를 바라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괜찮다는 언급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의 어머니는 아이들의 성취 수준이 높기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거나 지금의

노력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등 성취 과정에서 좋은 태도를 가지기를 바람을 알 수 있다.

“상위권 정도는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어머니 사례 7)

“과학교등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한국 어머니 사례 11)

“처음에는 속상하겠지만 다른 것을 찾아봐야겠지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일본 어머니 사례 9)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해서 잘 했으면 좋겠지만 못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걸로 괜찮습니다.”(일본 어머니 사례 2)

<표 9> 성취기대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자녀에 대한 진로 기대	진학기대 (성취기대)	상위권	대부분(10)	드문(1)
		보통이상	드문(1)	드문(2)
		보통		드문(3)
		잘 하고 있어서 유지하길 바람		드문(2)
		최선을 다하기	드문(1)	드문(3)
		미래에 진로선택권이 많아질 정도		드문(1)

3) 성취기대와 다를 경우

성취에 대한 기대가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 간에 다르게 나타난 것처럼,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한국 어머니는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대부분 기준에 도달하도록 조력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기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 어머니는 대부분 잘 하는 다른 영역을 찾아 주겠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제 기준은 그 학년의 기초과정은 습득해야한다는 주의라서. 그것이 안 되면 학년이 올라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지고... 며칠 전 본 시험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전 성적 올리기 위해서 엄마랑 함께 더 노력해보자고 했어요.”(한국 어머니 사례 5)

“지금도 아주 공부를 잘 하는 편이 아니고... 춤을 잘 추니깐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일본 어머니 사례 3)

이러한 결과로 종합해 보면, 일본 어머니는 성취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잘 하는 다른 영역을 찾아줌으로써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한국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성취라는 목표는

고정한 채 이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성취기대와 다를 경우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자녀 진로 기대	진학기대 (성취 기대와 다를 경우)	어머니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실제적으로 도움을 줌)	대부분(10)	드문(2)
		잘 하는 다른 영역 찾아주기		대부분(8)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 (원인 분석)	드문(5)	드문(2)
		받아들임		드문(2)
		속상, 실망함	드문(1)	드문(3)

4) 자녀의 직업선택기준

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에 대해서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가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표 11 참조). 대부분의 한국 어머니는 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대부분의 일본 어머니는 자신의 적성에 맞고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 어머니의 경우에도 자녀의 직업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지만 일본 어머니에 비하면 적은 응답 빈도를 나타냈다.

“무언가가 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만의 특색이 덧붙인 직업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역이 분명히 있는 직업. 그 아이가 없으면 안 되는 직업인..”(한국 어머니 사례 4)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 어머니는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의 조건이나 특성을 고려하기를 자녀들에게 기대하지만, 일본 어머니는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한국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었고, 일본 어머니는 보람을 얻거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

<표 11> 자녀의 직업선택기준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자녀 진로 기대	직업기대 (자녀의 직업선택 기준)	경제적 안정	대부분(6)	드문(3)
		전문성이 있는 직업	대부분(6)	
		적성에 맞는 직업	드문(5)	대부분(8)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드문(3)	대부분(7)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드문(2)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직업		드문(4)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직업		드문(2)

5) 자녀미래상

자녀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 모두 하나의 두드러진 미래상이 있기 보다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한국 어머니의 경우 자녀들이 미래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 어머니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자립 등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어머니들에게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자녀미래상은 ‘월등한 사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있었으며, 일본 어머니에게서만 언급된 자녀미래상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한국어머니에 비해 일본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볼 때, 대인관계를 자녀미래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 자녀미래상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자녀 진로 기대	직업기대 (자녀 미래상)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드문(4)	드문(5)
		행복한 사람	드문(3)	드문(2)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	드문(2)	드문(1)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	드문(1)	드문(4)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드문(2)	
		월등한 사람	드문(2)	
		성실한 사람(규칙, 철저, 열심)	드문(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드문(2)
		남을 도와주는 사람	드문(1)	드문(2)
		자립	드문(1)	드문(1)

3. 자녀진로와 어머니의 밀착도

1) 진로지도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는 진로지도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볼 수 있다(표 13 참조). 한국 어머니의 경우 대부분 자녀가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대부분의 일본 어머니는 정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이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한국 어머니 사례 11)

“밖에서 싫은 일이 있더라도 가정에 오면 위로를 해주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무엇이든지 지지해주는 역할이요.”(일본 어머니 사례 5)

물론 한국 어머니도 정서적 지원을 중요한 역할로 여기고 있지만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전반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이밖에도 한국 어머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조언을 해 주며, 친구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일본 어머니의 경우에는 경제적 제공, 조언 제공, 보호 등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본 어머니는 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진로지도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자녀 진로와 어머니의 밀착도	진로지도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	대부분(7)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	드문(4)	대부분(7)
		다양한 경험을 접하게 해주는 사람	드문(2)	
		친구 같은 사람	드문(2)	
		조언해주는 사람	드문(2)	드문(2)
		경제적 제공을 해주는 사람		드문(2)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드문(2)
		보호해주는 사람		드문(2)
		성장을 돕는 사람	드문(1)	드문(1)

2) 어머니에게 있어 자녀 진학준비의 중요도

자녀의 진학준비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학 준비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자녀의 진학 준비가 자신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의 생각이 달랐다(표 14 참조). 한국 어머니는 대부분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본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에서 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어머니들이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응답할 때는 어머니의 생활이 자녀의 진학준비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의 진학준비를 위해서 보내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어머니가 자녀의 진학준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4> 어머니에게 있어 자녀 진학준비의 중요도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자녀 진로와 어머니와의 밀착도	어머니에게 있어 자녀 진학준비의 중요도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	대부분(9)	드문(2)
		내 인생의 절반이상	드문(1)	드문(5)
		내 인생의 반 정도	드문(1)	드문(4)
		별로 중요하지 않음	드문(1)	드문(1)

4. 진로지도

1) 진로관련 대화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는 진로와 관련하여 자녀들과 비슷한 내용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가장 많이 하는 대화로는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며, 이 밖에도 직업정보나 직업 준비사항 등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국가 어머니 모두 아이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수이지만 아직 진로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관심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tv에서 나오는 요즘 발전하는 것에 대해 가끔씩 이야기해주고 하는데...”(한국 어머니 사례 7)

“아이가 댄스를 좋아하는데 댄스는 잘 하고 있는지.. 지금도 댄스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등을 이야기합니다.”(일본 어머니 사례 3)

<표 15> 진로관련 대화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진로 지도	진로관련 대화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대부분(6)	대부분(6)
		직업정보 제공	드문(5)	드문(4)
		직업준비사항에 대해 이야기	드문(3)	드문(3)
		하지 않음	드문(2)	드문(2)

2) 자녀의 적성찾기

자녀의 적성을 탐색하는 방법도 한국과 일본 어머니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표 16 참조). 자녀의 적성을 찾기 위하여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가능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예체능과 주요교과와 관련된 과외 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부모님이 직접 도와주거나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일본 어머니는 대부분 예체능과 관련된 과외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모님이 직접 도와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 어머니는 자녀들이 가능한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일본 어머니도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그 내용이나 정도가 한국 어머니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 자녀의 적성찾기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진로 지도	자녀의 적성찾기	체험(가서 실제로 해보는 것)	대부분(8)	드문(4)
		과외수업(주요교과와 예체능 동시)	대부분(7)	드문(3)
		과외수업(예체능만)	드문(2)	대부분(9)
		부모의 조력	드문(5)	드문(4)
		책	드문(4)	드문(2)
		경험(보는 것, 가는 것)	드문(3)	드문(2)
		과외수업(주요교과만)	드문(3)	
		없음	드문(3)	

3) 진로지도 관여기간

진로지도에 관여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생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표 17 참조). 대부분의 한국 어머니는 대학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로지도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본 어머니는 대학까지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관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어머니는 일본 어머니에 비하여 진로지도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책임을 오랜 기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가 자립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조카들이 대학을 다니는 아이도 있고 졸업한 아이도 있는데 언니는 끝까지 개입하고 있어요...진로문제나 대학교를 정하는 것도 아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경험을 했으니까 엄마가 더 끌어줄 수도 있고, 엄마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아이의 영향력이 커질 때까지 개입해야한다고 생각해요.”(한국 어머니 사례 4)

“일하기 전까지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밥도 지어주고, 진로 선택 시 조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일본 어머니 사례 3)

<표 17> 진로지도 관여기간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진로 지도	진로지도 관여기간	고등학교까지	드문(1)	드문(2)
		대학까지	드문(4)	드문(4)
		일하기 전까지		드문(3)
		계속	대부분(6)	드문(2)

5. 진로지도 시 어려운 점

1) 진로지도 부담요인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 모두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진로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나 또는 아직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표 18 참조). 하지만 한국 어머니의 경우에는 진로지도를 하면서 간혹 자녀의 적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의 분위기(예: 어려서 부터 영어를 가르치거나 진로지도를 하는 주변 분위기)로 인해서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표 18> 진로지도 부담요인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진로 지도 시 어려운 점	진로지도 부담요인	자녀의 특성(적성, 흥미, 발달단계)찾기	드문(3)	드문(1)
		외부 영향으로 인한 부담(영어교육을 해야 하는 분위기, 진로지도를 해야 하는 분위기)	드문(2)	
		차이가 나타날 때 (부모와 자녀의 희망 다를 경우, 아이의 능력과 목표의 차이가 생길 경우)	드문(1)	드문(1)
		초등학생이라 아직까지 진로부담이 없음	드문(5)	대부분(9)

2) 진로지도 부담요인 해결법

진로지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화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한국 어머니는 아이나 배우자와 대화를 하거나 또는 강의를 듣고 전문 서적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 어머니는 대부분 학부모모임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간혹 배우자나 친정가족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 어머니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와 직접 해결을 하거나 강의나 서적과 같은 매체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비하여, 일본 어머니는 다른 학부모나 친정 부모님과 같이 주변 사람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해결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표 19> 진로지도 부담요인 해결법에 대한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한국 빈도	일본 빈도
진로 지도 시 어려운 점	진로지도 부담요인 해결법	배우자와 대화	드문(4)	드문(3)
		학부모 모임(엄마모임)에서 해결		대부분(9)
		아이와 대화	드문(4)	
		강의듣기	드문(3)	
		책읽기	드문(3)	
		친정가족과 해결		드문(3)
		혼자 해결	드문(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4명의 한국과 일본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직업 가치관 및 자녀의 진로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 그리고 진도지도 경험을 함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 한국과 일본 어머니 사이에는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직업가치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한국과 일본 어머니 모두 직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직업의 외재적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직업의 도구적 가치로서의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병숙, 1997; 백영균, 1980; 임인재, 1990). 하지만 한국과 일본 어머니가 모두 직업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 어머니는 대부분 직업을 '자아실현의 도구'라고 생각한 반면, 일본 어머니는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직업이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는 곳이라는 응답은 일본 어머니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관점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 상호협조한다는 의미의 '오모이야리(思いやり)'를 강조할 뿐 아니라(서보운 외, 2011), 사이 좋게 밥(禾)을 나눠 먹는다(口)는 의미의 와(和)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이원복, 2000). 일본 전문가들은 이러한 와문화는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한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싸움이 나면 갈 곳이 없는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나라이다. 도망갈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섬에서의 싸움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 바탕에는 혼자만 살려고 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인식이 있으며,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박봉식, 2011).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것은 일본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직업도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 어머니들에게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관점은 직업이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곳'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주는 곳'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은 성취를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여긴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그리고 한국은 뚜렷한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이다(최윤식, 2011).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성과와 성취를 강조하는 직장문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는 다시 오랜 시간의 노동시간으로 이어졌다. 결과 한국인들에게 직업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교육이 신분상승의 통로로 여겨져 왔다(기와이노리코, 2011). 물론 최근에는 교육을 통한 학력만으로 신분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교육을 통한 좋은 직장의 선택 그리고 이를 통한

신분 상승은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김태호, 2012; 최상진, 2000). 결과 한국인들에게 직업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도구인 것이며, 지위와 함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자신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 어머니는 직업 선택 시 경제적인 사정(예: 경제적 어려움, 집안사정)과 직업의 조건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지만, 일본 어머니는 대부분 타인의 권유(예: 부모, 선생님, 주변 사람)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상적으로는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서 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직업 선택에 있어서 한국 어머니는 경제사정이나 직업조건을 일본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권유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한국과 일본 어머니 모두가 이처럼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적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진로발달의 중요성이 교육되지 않았던 시기에 성장하면서 적절하게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의식을 비교한 연구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은 13.2%가 장래 직업 선택 시 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45.2%가 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일본인들에게는 직업선택 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용덕, 2006). 물론 한국의 경우 진로선택 과정에서 부모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는 부모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하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비교적 독립적인 태도를 가진다(김명희, 2003; 이용덕, 2006).

셋째, 한국 어머니는 일본 어머니에 비하여 진로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어머니의 경우 반드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한국 어머니는 모두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성취에 있어서도 한국 어머니는 대부분이 상위권이기를 바랐지만 일본 어머니는 상위권을 원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한국 어머니는 자신의 기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고 하였지만 일본 어머니는 잘 하는 다른 영역을 찾아주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5년 일본의 국립여성교육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와 일치한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한 비율은 일본 부모의 경우 45%였지만 한국 부모는 83.5%였다(國立女性教育會, 2007). 즉, 높은 학력에 대한 기대가 한국 어머니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을 중요시 하는 유교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가와이노리코, 2011; 사사미쓰아키, 1990), 학력이 지위 상승의 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던 한국의 사회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김태호,

2012; 최상진, 2000).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면 이를수록 그것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한국 부모의 사고와(박영신 외, 2002), 자녀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받아들이는 한국 부모의 경향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심호규, 2007).

넷째, 자녀의 미래상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어머니는 전반적으로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 어머니는 일본 어머니와는 달리 자녀들이 비전을 제시하며 월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본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와 달리 자녀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국 사회는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경쟁이 보다 보편화되었을 뿐 아니라, 높은 학력을 통한 성공을 중요시 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손승영, 2010),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서의 주체적 자기를 강조하는 사회적 특성(이누미야요시유키, 김운주, 200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어머니도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 비하여 보다 월등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녀들이 월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한국 어머니의 기대는 한국의 체면문화와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일본도 체면문화가 있지만 사회적 교류수준인 다테마에에 의존하는 집단수준의 명분적 체면이 강한 반면(최상진, 김기범, 2000), 한국인의 체면은 자기 과시성,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하다고 한다(최상진, 유승엽, 1992). 결과 한국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월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미래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기를 바라는 요인은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가 달랐다. 한국 어머니는 자녀가 전문성 있는 직업이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랐지만, 일본 어머니는 적성에 맞거나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기를 바랐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의 차이를 통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고용량에 비하여 많은 구직자가 몰리면서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였다. 결과 안정적인 직장을 통해 보다 편안한 미래를 얻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전문성이 있는 직업은 안정적이라는 인식으로 고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전망이 생겨났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1950년대 이후 산업계로부터 대량의 고용이 창출되어 어느 학력집단이라도 학교교육 후,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의 폭이 넓었다(가와이노리코, 2011). 결과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열정이 한국에 비하여 덜 강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일본 어머니에 비하여 한국 어머니는 자녀의 진로준비가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로준비를 위해서 총체적인 지원을 해 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의 적성을 찾도록 돕기 위하여 체험의 기회 뿐 아니라 주요 교과 또는 예체능과 관련된 과외수업을 제공하

겠다고 하였지만 대부분의 일본 어머니는 예체능과 관련된 과외수업을 제공한다고 응답하여 지원의 폭과 양이 다소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진로지도 기간에 대해서도 한국 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까지도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관여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 어머니는 대학까지 또는 직업을 갖기 전까지 만으로 한정을 지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가깝고, 긴밀도가 높다(가와이노리코, 2011). 그리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하여 자녀의 진로를 위해 다양한 기회와 자금을 주려고 노력한다(이미나, 배종근, 1988; 이종각, 2005; 山田正弘, 2010). 결과 한국 어머니는 자녀의 진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도움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지라도 각자의 영역을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한국에 비해 멀며(가와이노리코, 2011), 자녀를 잘 양육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의 인생을 희생할 정도로 자식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부모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山田正弘, 2010). 이는 일본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본다면 한국 어머니는 자녀를 다소 소유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일본 어머니는 자녀의 진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한국 어머니에 비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제한된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진로지도 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서도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 어머니는 주로 아이와 직접 대화를 하거나 배우자와 의논 하는 등 가족 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반면, 일본 어머니는 대부분 '학부모 모임' 특히 어머니 모임(ママとも)을 통해 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족과 혈연 중심적 특징을 강하게 갖고 있지만 일본은 공동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어 양국은 가족의 기본구성 원리나 개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혈연자만이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되어, 혈연 이외의 타인을 덜 신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도제와 같은 비혈연자도 가족구성원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화가 보다 폭넓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권용혁, 2004; Fukuyama, 200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이 같은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도 한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가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집단주의라는 특성을 공유하는 동양문화권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분명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한국인들이 진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양과 서양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동양의 어머니가 서양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동양의 어머니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본 연구 결과에서 보여진 것처럼 한국의 어머니가 일본 어머니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높은 기대 수준을 성취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진로발달이나 진로에 대한 태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교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진로지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접의 응답을 살펴보면, 자녀의 특성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어머니들이 많았다. 자녀의 특성을 찾기 위해 어떤 활동이 좋을지 잘 모른다거나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대화는 구체적이지 못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보다 적절하게 자녀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직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의 특성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자료, 진로갈등을 해결해주는 대화법, 초등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구체적 자료나 주의점 등이 연구되어져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어머니의 특성을 자녀의 진로지도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 어머니는 그들의 높은 기대수준 만큼이나 진로지도에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개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어머니의 열정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이 되어 자녀의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진로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이현주, 2010), 적절한 부모의 개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은 가끔 그 수준이 지나쳐서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의 체면유지를 위한 지나친 기대와 요구는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진로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의 열정과 자녀의 독립성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부모 자신을 위한 요구와 자녀를 위한 요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부모의 열정이 지나쳐서 진로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할 때 진로상담자는 이러한 측면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로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큰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와 부모 간에 진로갈등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부모의 열정과 적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담자와 함께 간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진로발달 위한 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적절한 진로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관점에서만 자녀의 진로를 바라보았을 뿐 자녀의 관점은 탐색을 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자녀의 진로발달이나 진로준비 과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자녀의 관점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또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한국의 아동이 진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 5, 6학년층을 둔 대도시에서 사는 평균적인 학력과 평균적인 경제적 여건, 그리고 비슷한 교육관심도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선발된 한국과 일본의 도시가 정확히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5학년과 6학년은 한국과 일본 모두 고학년에 속하나 발달 단계상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심층된 연구를 위해 학년을 분리해서 연구해 비교한다면 학년에 특수화된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의 교육과정, 학교학제, 진로교육 등이 비슷하여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어머니의 응답 스펙트럼을 보면 일본 어머니의 답변 범위가 좁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일본인 진로상담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진행해 보다 더 포괄적으로 질문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본 문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일본 어머니들의 반응에 대하여 보다 풍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일본 문헌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에 속한 연구자가 전체 면접을 진행하고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일본 문화에 속한 사람의 관점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일본 문화에 속한 사람이 연구자로 참여한다면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중 한국과 일본만 비교하였으므로 한국과 일본에 덧붙여 중국 또는 다른 국가의 어머니에 대한 직업가치관을 비교한다면 동아시아의 확대된 비교연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가와이노리코(2011).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왜 계속 상승하는가?-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교육열.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권용혁(2004). **동아시아 3국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가족을 중심으로**. 서울: 이학사.
- 김광석(2012).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연구보고서 12-27)**.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김명희(2003). 대학생의 직업의식 및 결정요인 탐색. **삼척대학교 학생생활연구**, 9, 69-82.
- 김병숙(1997). **직업상담학**. 서울: 박문각.
- 김신경(1994). 초등학교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지각 및 지도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태호(2012). 한국사회의 학력과 계급 재생산: 대학교육의 의미 변화와 사회구조적 파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12, 907-925.
- 남경민 (2009). 학업우수 남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봉식(2011). 일본 대지진과 자녀의 진로기대문화. Retrieved March 27, 2011, from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103271747235640595§ion=S1N12§ion2=S2N47>.
- 박순이(2005). 부모와 교사의 유아발달 기대수준과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03-139.
- 박찬옥, 이은경(2012). 국가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부모역할 인식. **다문화콘텐츠연구**, 12, 65-94.
- 백영균(1980). 초·중·고등학생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빈승열(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진로의식간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사사미쓰아키(1990). 한일 유교문화의 비교와 재해석. **한국논단**, 15, 110-117.
- 서보운, 박남수, 小石寛文, 伊藤崇達(2011). 한일 대학생의 대인관계에서의 행동 특징에 관한 비교 문화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25, 201-217.
- 선혜연(2009). **청소년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경기: 한국학술정보.
- 소연희(2011). 초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0, 203-220.

- 손승영(2010).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자녀교육태도 비교연구: 교차거주자의 ‘자문화’와 ‘타문화’ 평가. **여성연구**, 2, 37-80.
- 신기숙(2010).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심호규(2007). 부모의 진로기대와 애착수준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양한주(1998).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노미(2005). 비교문화권의 이론과 실제. **인문과학**, 36, 367-394.
- 이누미야요시유키, 김윤주(2006). 긍정적 환상의 한일비교: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에 의한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 19-34.
- 이미나, 배종근(1988). **한국교육의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이용덕(2006). 한일 대학생의 직업의식 비교 분석. **일본문화연구**, 18, 159-173.
- 이원복(2000). **새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1**. 서울: 김영사.
- 이은영 (2011). 어머니의 진로인식과 진로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종각(편)(2005). **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해부와 대책**. 서울: 도서출판하우.
- 이주희, 문은미(2011).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 211-226.
- 이철구(2003). 인지, 정서, 행동치료적 진로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교정과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이향순(2008). 초등영재아와 일반아부모의 진로의식 차이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이현주(2010).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 41-59.
- 임병호, 정동양(2007). 국가별 청소년의 직업 교육 및 진로 지도 실태 비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호주, 일본. **한국기술교육학회지**, 7, 155-172.
- 임상옥(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직업가치관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임인재(1990). **직업가치관 검사 요강**.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직업기대와 진로결정유형. **인문과학연구논총**, 23, 1225-2360.
- 조찬성(2000). 부모의 직업과 자녀의 희망 진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최보운, 공윤정(2009). 부모의 성취압력 및 진로지도가 아동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8, 67-78.
- 최봉순 (2011).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진로지도행동척도개발. 박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최상진(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2000). 체면의 심리구조.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상진, 유승엽(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 최수미, 강유림(2013). 부모지각 진로지지가 자녀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 2291-2306.
- 최순자(2007). 유아를 둔 한국과 일본 부모의 양육태도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2, 111-130.
- 최윤식(2011). 좋은 일터에 대한 구성원의 기업 문화인식 유형과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황정은(2009).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7, 1-21.
- 姜永培(2004). 韓国における青少年の職業意識構造に関する研究. 博士論文, 東北大學校.
- 加藤守弘, 内藤勇次(1991). 児童, 生徒の進路発達に関する研究(1): 進路成熟及び勤労観における親の影響について. **日本教育心理學會第33回總會發表論文集**, 431-432.
- 國立女性教育會(2007). 家庭教育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報告書. **日本女性教育センター**, 秋, 91-156.
- 日本經濟団体連合会(2003). 若年者の職業観・就労意識の形成・向上のために- 企業ができる具体的施・策の提言. 東京: 日本經濟団体連合会.
- 東洋(2004). 日本人のしつけと教育. 東京: 東京大學校出版社.
- 山田正弘(1999). 家族のリストラクチュアリング. 東京: 新曜社. 장화경 역(2010).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 오늘날 일본가족의 재구조화. 서울: 그린비.
- Fukuyama, F. (1996). *Trust(트러스트)*. 구승희(역)(2002),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Hill, C. E., Thomson, B. J., & Nutt-Williams, E.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ill, C. E. et al.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otchkiss, L., & Borow, H. (1984).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career choice and attain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37-168).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Leong, F. T. L., & Hartung, P. (1997). Career assessment with culturally-different clients: Proposing an integrative-sequential conceptual framework for cross-cultural career counseling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183-202.
- Leong, F. T. L., & Serafica, F. (1995). *Career development of Asian Americans: A research area in need of a good theory*, In F. T. L. Leong (Ed.), *Career development and vocational behavior*

- of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pp. 67-102). Hillsdale, NJ: Erlbaum.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96). *Krumboltz's learning theory of career choice and counseling*. In D. Brown and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233-380).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 Murray, H. A. (1962).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Science Editions.
- National Institute of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Briefing Paper (1996). How career decisions are made. Retrieved September, 1996, from http://www.crac.org.uk/CMS/files/upload/nicec_how_career_decisions_made.pdf.
- Otto, L. B. (2000). Youth perspectives on parental career influen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2), 111-118.
- Schultheiss, D. P., & Blustein, D. L. (1994). Contributions of family relationship factors to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159-166.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and row.
- Super, D. E. et al. (1963). *Career development: self 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racey, T. J., Leong, F. T. L., & Glidden, C. (1986). Help seeking and problem perception among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31-336.
- Tuckman, B. W. (1974). An age-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93-212.
- Turner, S. L., & Lapan, R. T. (2002). Career self-efficacy and perceptions of parent support in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 44-45.
- Young, R. A., & Friesen, J. D. (1992). The intentions of parents in influencing career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198-207.

* 논문접수 2015년 5월 6일 / 1차 심사 2015년 6월 8일 / 게재승인 2015년 6월 19일

* 배기연: 성균관대학교에서 화학과와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초등생활과학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건국대학교에서 상담심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정목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yeonny96@naver.com

* 이동혁: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dhlee@konkuk.ac.kr

* 황매향: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교육상담 전공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는 '초등교사를 위한 문제행동 상담 길잡이',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학업상남', 'Academic Underachievement and Recovery: Student Perspectives on Effective Career Interventions' 등이 있다.

* E-mail: maehyang@ginue.ac.kr

* 이송하: 국민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LG Display 마음사랑 상담실에 재직 중이다.

* E-mail: vm-205@daum.net

* 차지숙: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상담센터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에서 시간제 상담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eggegg83@daum.net

* 정혜윤: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국문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한세대학교 레지던트상담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kittenhy@daum.net

Abstract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Mothers' Career Guidance*

Bae, Keeyeon
Lee, Donghyuck**
Hwang, Mae Hyang
Lee, Songha
Cha, Jisuk
Jeong, Hyeyun

This study explored Korean and Japanese mothers' career guidance by conduct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the study, 12 Korean and 12 Japanese mothers who have children of 5-6th grades were interview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oth Korean and Japanese mothers perceived that an occupation is an important mean for living and needs to be chosen according to individual's interest and aptitude. Also, Korean and Japanese mothers desired their children to obtain a job that will provide satisfaction and happiness. Second, some differences were found from Korean and Japanese mothers' perceptions regarding children's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guidance. While Korean mothers expect their children to make high achievement in their career, Japanese mothers expect their children to build health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their career. This indicates that achievement is a significant factor for Korean mothers in their career guidance, but relationship is a critical element for Japanese mothers in their career guidance. Third, Korean mothers responded that they are likely to assist their children as much as children want, but Japanese mothers indicated that they tend to restrict their role as emotional supporters. Base on these results, the study discusse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provided limitations and further recommendations.

Key words: work value, career expectation, career guidance, Korean and Japanese mothers,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This study is a part of Bae's doctoral dissertation.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Konkuk University

